

사랑과 인간의 본능

사랑과 발명의 공통점, 많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마음껏 사랑해보자.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고민거리와 불편한 점을 유심히 살펴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어느 새, 당신도 발명의 세계에 가까이 갈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본능을 주목하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듯하다. 클레오파트라가 벌꿀과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양귀비가 온갖 귀한 약재를 우린 물로 목욕을 했듯이, 현대의 여성들은 값비싼 화장품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최고의 황금시장이다.

사랑은 대박발명의 씨앗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약한 여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자동차에 깔린 어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렸다는 어머니의 '초인적인 힘' 이야기는 '모성' 즉 '사랑' 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한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약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신화를 거둔 것도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처럼 사랑의 힘은 때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인간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또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힘은 비단 운동경기나 위협의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아이디어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성 발명가 중에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많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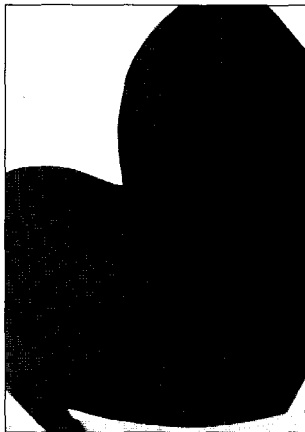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만약 어린 아들이 피부병에 걸리면 어머니는 그야말로 피부병에 관한 박사학위가 된다. 온갖 의학서적을 뒤지고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수집한다. 좋다는 방법은 모두 사용해본다. 때로는 스스로 새로운 비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데 가장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다.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당장 한번 시도해보자.

여간한 관심과 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랑은 사람을 관찰자로 만든다. 어머니는 용케 아기의 칭얼거리는 뜻을 알아낸다. 배고파 울거나 아파서 울거나 혹은 잠투정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똑같은 청얼거림으로 들릴 뿐인데, 어머니는 금세 그 뜻을 알아듣고 아기의 등을 토닥인다. 이것은 단순히 엄마와 아기 사이에 통하는 교감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관찰 또한 아이디어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아주 작은 것까지 관찰하고 세심히 배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발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때문에 사랑과 애정은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것이다.

발명역사에는 발명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지 않은 몇진 아이디어가 많다.

대부분 전문 발명가가 아닌 주부들이 그 주인공인데, 이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생활과 밀접한 자기자기한 발명품을 많이 남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성용 팬티와 관련된 아이디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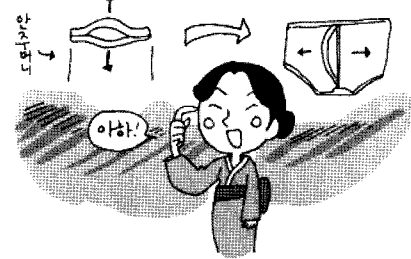
젊은 남성들이 즐겨 입는 삼각팬티는 사쿠라이 할머니로 알려진 여성발명가의 발명품이다. 당시만 해도 남성의 팬티는 반바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것도 무릎근처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이야 이해 못할 일이었지만, 당시는 오히려 짧은 팬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겨울에는 상관없었지만, 더운 여름에는 긴 팬티가 거추장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 더군다나 하루 종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의 여름은 덥고 습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날씨이기에 아이들은 긴 팬티 때문에 땀띠로 고생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알아차린 것은 사쿠라이 할머니.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더운 여름날 사타구니를 긁어 발갛게 발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아이에게 치렁치렁한 팬티가 거추장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부끄러울 게 없는데, 팬티가 짧은들 어때. 긴 속옷 때문에 불편한 것보다 훨씬 낫지. 중요한 부분만 살짝 가리면 될 거야’ 사쿠라이 할머니는 손수 어린 손자의 팬티를 잘라서 아주 작은 삼각모양으로 만들었다. 다리는 훨씬 드러내고, 사타구니만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훨씬 간편해진 팬티덕분에 어린 손자가 여름을 잘 견뎠다는 두 말

남편의 속옷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했는데, 어느날 남편이 양복안주머니에 손을 넣는것을 보고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팬티는 단순히 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긴 속옷의 불편함은 모든 남성들의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던 것. 할머니의 삼각팬티가 동네 아낙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짧고 가벼운 속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평범한 할머니가 남성들을 불편함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팬티에 관련된 발명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한 새색시. 이 여성의 관심사도 공고롭게 남편의 팬티였다. 당시 남성들의 팬티는 앞트임을 단추로 여미도록 고안되어 있었는데, 덩벙거리는 성격의 남성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하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곤 단추를 제대로 여미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물론 단추 팬티에 익숙해진 남성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슬이슬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해 남성의 세계를 접한 새색시로서는 단추가 달린 팬티가 어색하게 보인 것은 당연한 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단추를 끄르고 잠그는 일을 반복한단 말이야? 만약에 술이라도 얼근히 취해서 제대로 손을 놀릴 수 없을 때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남자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남편도 단추가 살갓을 자극해 거추장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다. 게다가 직업상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실 때도 있는 터라 새색시로서는 여

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모든 일의 출발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법.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스쳐지나가던 것들도 그 쓰임새나 모양이 새삼 눈에 들어온 것이다. 하찮은 것도 모두 힌트가 되는 것들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 꺼내는 것을 목격한 그녀는 탄성을 내질렀다.

‘맞아, 바로 그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천을 엇갈리게 겹치면 단추를 달지 않아도 벌어지지 않겠다.’ 그녀의 생각은 적중했다. 팬티의 앞트임을 두 개의 천으로 넉넉히 겹쳐 두니 벌어지지 않았고 소변을 보기도 편했다. 남편도 그녀의 생각에 놀라워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당장 만들어 내다 팔아도 될 정도로 완벽해.”

그녀의 아이디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상품화에 성공했다. 단추를 다는 공정을 생략하니 팬티의 가격도 싸고 모양도 훨씬 좋았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당연한 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도 당연한 발명가로서 발명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발명품으로 승화된 사례도 많다. 아기들을 위한 도넛 베개가 그것.

아기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특히 어린 아기 때에는 모든 것이 성숙하지 않아서 엄마의 손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엄마들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기 마련.

베개 때문에 머리 모양이 납작하게 눌리지는 않을까, 입는 방법 때문에 다리가 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다.

첫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한 ㅎ씨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고민을 달고 사는 엄마였다. 그녀의 고민거리는 아기의 잠버릇. 몸을 뒤척이다가 아기가 뒤집어질 경우 베개나 이불에 눌러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ㅎ씨는 고민이 많았다.

혹시나 자기 아기에겐 그런 변이 생길까 걱정이 된 것. 또 납작한 베개 때문에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것도 고민거

리였다.

그녀가 도넛을 먹다가 새로운 베개를 만든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매일 아기의 새로운 베개를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레 베개와 도넛을 연결하게 된 것이다.

‘그래 맞아, 베개를 도넛처럼 만들면 뒤통수가 구멍으로 들어가서 납작하게 눌릴 일이 없겠다. 또 설령 뒤집어진다고 해도 도넛의 구멍 때문에 입이랑 코가 바닥에 닿지 않으니 질식사 할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신생아용 도넛 베개가 탄생한 것이다.

이 베개는 아직도 유아용품 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보통 베개보다도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한 일. 그래도 그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엄마들에게 대인기였다고 한다.

사랑과 발명의 공통점, 많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마음껏 사랑해보자.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고민거리와 불편한 점을 유심히 살펴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어느 새, 당신도 발명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본능이 곧 황금발명의 소재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듯하다. 클레오파트라가 벌꿀과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양귀비가 온갖 귀한 약재를 우린 물로 목욕을 했듯이, 현대의 여성들은 값비싼 화장품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미용 산업은 최고의 황금시장이다. 특히 현대에 미용기술이 한껏 발달하면서 아름다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자, 그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미용시장은 유행에 민감하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아이디어맨들에게는 최고의 분야이기도 하다. 게다가 화장품, 의상, 헤어디자인, 다이어트, 피부 관리, 체형관리 등등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잘 모르는 일이겠지만 여성이 미용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적어도 직업여성이라면 아침에 30분 이상을 화장에 투자한다. 사용하는 화장도구



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 화장수부터 피부 결을 고르고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는 파운데이션, 눈매와 입매를 강조해서 얼굴 윤곽을 돋보이게 하는 색조화장품까지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만도 줄잡아 10여 가지는 넘는다.

저녁에는 아침과 또 다른 화장품이 기다리고 있다. 화장을 깨끗이 지우는 크림과 전용 비누, 여기에 피부에 탄력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성 화장품 등을 사용한다. 일주일에 한번은 피부를 집중 관리한다. 값비싼 엡센스를 바르고 팩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좀 더 미용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 피부 관리 업체를 찾아가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피부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관리한다.

한달에 한번은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다듬는 게 상례다. 머리색을 바꾸기도 하고, 파머를 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파머를 하려면 적어도 3~4시간은 꼼짝없이 잠혀있어야 하고, 적어도 5~6만 원의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미용시장이 남성에게도 확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발명 계에는 미용시장에 눈을 돌려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미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메이커인 에스테로더도 그 중의 하나다.

에스티가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피부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아, 비누를 직접 만들어 썼는데, 이것이 아버지 눈에 띄었다.

“오호, 좋은 생각이다. 피부는 매우 민감하거든. 비누 하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좋은 피부를 유지하려면, 좋은 재료로 만든 비누와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게 좋단다.”

아버지의 짧은 조언은 어린 에스티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녀의 인생을 결정했다. 성인이 된 에스티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자신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젊고 맑은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들여 화장품을 만들었다. 당시 값싼 대중 화장품이 속속 등장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생각은 견고했다.

‘품질만 좋다면, 값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싸구려 화장품을 쓰곤 피부가 엉망이 되는 것보다, 좀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최고의 화장품을 쓰는 게 낫지. 여성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그녀의 자존심 걸린 고집은 결국 여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그녀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팬이 늘어났고, 인기는 점차 일반 대중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녀가 미국 최고의 화장품 전문회사로 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0세에 발명계에 입문한 하리스도 미용계에 잠재성에 눈을 떠 성공을 거머쥌 수 있었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퍼머넨트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파머는 무겁고 거대한 기계를 뒤집어쓰고 몇 시간씩 고통을 참아야 하는 중노동이었다. 또한 가격도 만만치 않아, 여간해서는 미용실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

‘아무리 예뻐진다지만, 그렇게 힘든 것은 여자들도 싫어 할 거야. 게다가 너무 값이 비싸니... 값싸게 간편하게 파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는 집에서 간단하게 파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개발에 매달렸다. 미용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고 아내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거듭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무렵, 그는 최초의 파마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웨이브액과 중화제 권모기 고무 띠 등으로 이뤄진 파머용품이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하리스는 이 파머용품을 ‘토니’라고 이름 붙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그는 자기 제품을 알리는 데에도 수완을 발휘했다. 쌍둥이 자매에게 한명은 토니를 이용해 스스로 파머를 하도록 하고, 한 명은 유명한 미용실에서 파머를 하도록 한 뒤 둘을 구별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만큼 토니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전략이었다.

이 계획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하리스가 생각한대로 여성들은 좀더 저렴하고 간편한 파머도구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파머용품이 나왔으니... 여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남성이었지만, 여성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기에 얻은 성공이다. 이밖에도 미용의 틈새시장을 노린 아이디어 상품도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머리염색 약품이다.

이전에는 희게 새어버린 머리를 감추기 위해 흑발로 염색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머리염색은 젊은이가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다. 붉은색, 파란색, 심지어 하양

계 머리색을 바꾸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미용실에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주머니가 얇박한 학생이나 직장 초년병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니다.

여기에 주목한 화장품 전문회사가 내놓은 것이 바로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염색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혼자서 염색할 수 있도록 염색약은 흐르지 않는 크림 타입이 개발됐고, 기존의 밤색 계열 외에도 붉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 선보였다. 또 미용실의 전문인처럼 여러 가지 염색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수 빗 등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함께 선보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헤어칼라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효자 품목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또 하나의 틈새시장은 남성용 화장품.

지금까지 남성용 화장품은 면도 후 피부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피부를 관리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제 여성 화장품 못지않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고도 서서히 나타날 정도다. 이런 욕구를 잘만 이용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이어트 분야도 발명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다. 각종 운동기구, 다이어트 식품, 체형관리 전문 시스템 등 무궁무진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유능한 사냥꾼이라면 사냥감이 풍부한 사냥터를 놓치지 않는 법이다. 알짜배기 미용 시장을 향해 실력을 발휘해보자.

한국발명진흥회

	<p>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인협회 사무총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한국스카우트연맹 편집위원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발명 강사 세계최대발명도서저술인(104권)</p>
--	---